

삼성물산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2분기 삼성물산 실적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실적발표를 위해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강병오 부사장,

IR금융팀장 강태규 부사장,

건설 경영지원실장 한선규 부사장,

상사 경영지원팀장 조용남 부사장,

패션 경영지원담당 안상욱 상무,

리조트 경영지원팀장 이상훈 상무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금일 발표는

2026년 2분기 전사 경영실적,

각 사업부문별 실적 및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 드린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분기부터 영문 통역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는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2분기 실적 및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IR금융팀장 강태규 부사장이 발표하겠습니다.

(IR금융팀장 강태규 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사 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11조 9,950억,

영업이익은 1조 320억으로 이익률 8.6%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하이테크 공정 본격화, 상사 트레이딩 호조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은 1조 5,290억, 영업이익은 3,120억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도 매출은 1조 9,730억, 영업이익은 2,790억 증가한

건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기타손익은 △110억, 금융손익 340억, 지분법손익 220억으로

세전이익은 1조 770억, 당기순이익은 9,160억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부문별 실적입니다.

< 건설 부문 >

건설부문 2분기 매출은 3조 9,880억, 영업이익은 2,020억입니다.

하이테크 P4 마감 및 P5 골조 공사 본격화,

전년 신규 수주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정 호조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으며,

이익률도 3.2%에서 5.1%로 개선되었습니다.

2분기 수주는 안양 종합운동장 재개발 0.8조, 대치쌍용1차 0.7조, 중국 서안FAB 0.5조, 국가AI컴퓨팅센터 0.5조,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 0.3조, 기흥 NRD-K2 0.3조, 평택 P5 FAB2 0.3조 등을 포함해 총 5조 4,480억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주는 10조 4,480억, 수주잔고는 34조 2,440억입니다.

주택시공권도 압구정4구역 2.1조, 개포우성4차 0.8조, 방배신삼호 0.7조, 신반포19차25차 0.4조 등을 확보하며 2분기에만 4조원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연간 주택시공권 확보도 13조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하이테크 공정 본격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주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주택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안건을 지속 확대해, 연간 수주 및 매출 가이드언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상사 부문 >

상사부문 2분기 매출은 4조 7,030억, 영업이익은 1,420억입니다.

화학/비료 가격 상승 적기 대응,
철강 고수익 판매 확대 및 니켈가 상승으로

트레이딩 호조세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는 주요 품목 시황 하락과

EU 수입산 철강 쿼터 적용 등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는 화학, 비료, 비철금속 시장 다변화,

철강 고수익 품목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사업은 상반기 매각이익 약 32백만불

(1분기 22.2백만불, 2분기 9.5백만불)을 기록했으며,

파이프라인은 15.5G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말 태양광 개발 사업 파이프라인은 20GW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패션 부문 >

패션부문 2분기 매출은 5,930억, 영업이익은 540억입니다.

소비심리 개선 기조 속에서 주력 브랜드와 신규 브랜드가

힘을 보태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할인을 관리를 통해 정상가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도 9.1%로 개선되었습니다.

3분기에는 소비심리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상반기 대비 성장세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나,
연간으로는 상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레저 부문 >

레저부문 2분기 매출은 2,060억, 영업이익은 4억입니다.

여가 수요 분산에 따른 파크 입장객 감소와
조경(GSS) 대형 현장 종료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3분기에도 여가 수요 분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캐리비안베이 집객 경쟁력 강화와 시즌 콘텐츠를 통해
성수기 수요를 선점하는 등
집객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식음 부문 >

식음부문 2분기 매출은 8,860억, 영업이익은 480억입니다.

급식사업의 신규 사업장 확대에 따른 식수 증가와
식자재 유통 외형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도 수익성 기반의 신규 수주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전년대비 실적 개선을 추진하고,
연간으로도 견실한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바이오 >

바이오로직스 2분기 매출은 1조 2,260억, 영업이익은 5,800억으로
이익률 47.3%를 기록했습니다.

1~4공장 Full 가동과 우호적 환율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에피스홀딩스는 2분기 매출 3,930억, 영업이익 60억으로,
제품 공급 일정 변동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5공장과 미국 록빌 공장의 단계적 Ramp-up을 통해
연간 매출 성장(YoY +15~20%)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수익성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피스홀딩스는 시밀러 판매 확대 등으로 연간 매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후속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비 영향으로
수익성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당사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사업과 데이터센터 등 신규 사업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nergy Solution 사업은 국가별 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Early Involvement를 통한 사업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 LNG 분야는 기존 수행국 사업 참여를 지속하며 동남아 및 유럽 등으로 진출국을 확대하고 있고,

PV · BESS 분야는 대형 EPC 수행과 파트너십 기반 지분투자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해 개발 · 운영 역량을 확보하며 국내 서남권, 호주, 북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원전은 팀코리아 기반 다양한 기술 모델을 동시에 운용하며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제2원전은 내년에 팀코리아 시공 파트너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루마니아 3 · 4호기는 한수원과 협력하며 올해 4분기 시공사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SMR은 유럽 5개국 중심으로 총 12.2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VH사와 함께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서 총 11.7GW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NuScale사와는 루마니아 초호기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사업모델 다각화를 통해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CSP사의 후속 안전 연계 수주와 국내, 동남아(말레이시아, 태국 등) 등에서의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 수주한 말레이시아 PUC2 데이터센터 0.3조, 용인덕성IDC 0.5조, 국가AI컴퓨팅센터 0.5조 등을 포함해 약 2조원 이상 데이터센터 수주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Life Science 분야는 CVC 펀드를 통한 신사업 기회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ife Science 펀드 3호를 2,000억원(당사분 792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펀드 1호 1,700억원(당사분 990억원), 펀드 2호 720억원(당사분 499억원)을 포함해

누적 총 4,420억원(당사분 2,281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차세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발굴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략적 협력 기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전자 데이터와 AI 기술 기반의 항원 타겟·신약 발굴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Cartography Biosciences사에 투자하였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금번에 스위스 PolyPeptide사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비만·당뇨 치료제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펩타이드 분야의 신기술 역량을 확보해 CDMO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미국에 이어 유럽 지역의 생산 시설과 거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재무구조 】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말 총자산은 163조 7,690억, 자본은 113조 7,090억으로 전분기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차입금은 3조 870억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44%로 1분기말 50% 대비 6%p 개선되었으며,

유동비율 150%, 차입금 의존도 1.9%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 질의 응답 】

(질의) 건설 부문 영업이익률 2024년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5%대로 올라온 듯한데, 조금 전 발표 시 하반기에 더 좋을 것이라고
하셨음. 마진 기준 5%가 유지되는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2분기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하이테크는 평택 P5 등
발주처의 투자 재개로 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손익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6년 3분기 이후 본격적인 손익 실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6년 향후 전망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이테크 신규 투자 확대에
연초 가이드라인 발표 시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봐도 하이테크의 대규모 투자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과 플랜트 등 상품들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어서
향후에도 건설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의) 바이오로직스가 인수하기로 한 PolyPeptide사
매출액, 이익 규모, 향후 전망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언론에도 공개된 바와 같이 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펩타이드 CDMO인 PolyPeptide사를 인수했습니다. 2.7조원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관련하여 PolyPeptide사의
25년 매출 규모는 3억 9,200만 유로이고 영업이익은 900만 유로
수준입니다.

현재 발표만 하고 인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동 실적이나 매출 기업 규모 등이
순차적으로 확정되면 다시 소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외 원전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발표
내용에서 언급하셨던 팀코리아 루마니아 및 베트남 외에
추가 파이프라인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원전 프로젝트가 물산의
매출, 영업이익에 어느정도 기여할지

(답변) 각국의 인허가, 금융 조달, 정책 결정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기대보다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기조를 고려할 때
대형원전 및 SMR 시장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CSP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원전/SMR 전력을 선점하려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원전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대형원전 및 SMR 파이프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원전 사업의 경우 루마니아 3/4호기, 베트남 원전, 사우디 원전 등 한전과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대형원전 3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원전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해외 노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루마니아 원전 3/4호기 프로젝트는 CANDU 중수로 노형 사업으로, 현재 한수원이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입니다. 당사는 동일 부지에서 한수원과 함께 수행중인 삼중수소 제거설비 및 설비개선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수원의 시공 파트너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 시공사 선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원전 프로젝트는 한전이 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사는 UAE원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전의 시공 파트너사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 일정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27년 초 시공사 선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최근에 미국-사우디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이 채택될 경우 한전을 중심으로 당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사 등 Team Korea와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하는 사업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당사는 Team Korea의 핵심 참여사로서 한전의 입찰 활동을 지원하며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및 미국 지역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신규 원전 사업 안건을 지속 발굴 중이며,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MR 사업의 주요 파이프라인 및 진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SMR 사업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GVH와 '25년 10월에 SMR 공동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웨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SMR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영 전력회사인 Vattenfall 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사인 Studsvik-Karnfull사 주관으로 SMR 사업 개발이 진행 중이며, 동 프로젝트는 '26년 8월 사업개발 파트너사 선정을 시작으로 '31년 착공 및 '3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4년 12월 Karnfull사와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GVH사와 기존에 구축한 SMR EPC 공동 수행 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FEED 및 본공사 수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스토니아 SMR사업은 현재 Fermi Energia사 주관으로 사업개발이 진행 중이며, SMR 기술로 GVH를 선정하고 '32년 본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5년 4월 에스토니아 SMR 발주처와 Teaming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목적의 설계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향후 본공사 수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주처 및 GHV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SMR사업은 발주처인 OSGE사 주관 하에 GVH SMR 다수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며, '30년 1호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5.12월 SGE사와 사업개발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발주처 및 GVH사와 함께 사업개발 전 단계에 걸쳐 긴밀한 협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SMR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와 뉴스케일은 '25년 11월 루마니아 SMR사업 FEED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SMR 사업의 실행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77MW 모듈 1기를 우선 상업 운전하여 성능을 검증한 후에 잔여 5개 모듈을 단계적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사의 사업 참여 범위 및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Pre-EPC 단계의 역무를 수행 중이며, '28년내 EPC 계약 및 금융종결을

완료한 후 착공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성 검토결과 및 금융종결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은 존재하며, 당사는 뉴스케일 및 Fluor와 함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4세대 SMR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사업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용화에 근접한 다양한 4세대 기술선에 대한 투자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세대 SMR 중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기술선과 구체적인 투자/협력 조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확정되는 시점에 시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질의) 최근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산의 국내 데이터 센터 확대 전략,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 공유 부탁드립니다
MW당 건설비 수준 궁금함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국내외 데이터센터 사업 전략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활용 확대에 따라 국내외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센터 발주가 증가하고 사업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전 및 인허가 리스크가 해소되고 테넌트가 확보된 안전들 위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단계부터 투자 또는 PCS 등 초기 참여를 통해서 프로젝트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Capex 및 Opex 절감과 공기 단축 등 발주처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거나 공법 변경 및 설계 제안을 통해서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데이터센터 사업은
안산 이지스 데이터센터, 용인-덕성 데이터센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국내 3개 프로젝트와 말레이시아 2개 프로젝트로,
전체 약 2조원 규모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요 개발사와 협업하여 비경쟁 수주를 추진중이며,
해외는 현재 수행중인 글로벌 CSP사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특히, 당사는 작년 말레이시아에서 글로벌 CSP로부터 데이터센터를
수주한 이후 올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당사의 공사관리 역량을 인정하여
후속 프로젝트에서도 당사와 지속 협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 향후 말련, 태국, 인도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MW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반 조건, 지하층 유무, 파일공사 유무,

스펙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이번에 건축 수주가 거의 10조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중 하이테크 수주 얼마인지, 연초에 주셨던 하이테크 수주 가이드스가 좀 보수적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해야 하는지, 23년도에 건축 수주가 17조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랑 비슷하게 가는 걸로 보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함.

(답변) 올해 상반기 약 10조원을 수주했는데, 하이테크 수주는 그 중 약 6.4조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이테크 수주 진행 상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 사업은 현재 AI 수요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Capa 확대를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FAB 투자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당사 수주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택 단지는 현재 P4 마감공사와 P5 FAB1의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동시에 하반기에는 P5 FAB2도 골조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5 FAB1의 Ph1 마감 공사도 연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후속 마감공사의 발주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고객사는 기흥 단지에서 R&D FAB인 NRD-K2 투자를 확정하였고, 대규모 D램 생산 라인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양 단지에도 후공정 라인 증설을 위한 투자가 계획되고 있어 하반기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Taylor 경우에도 하반기에 신규 FAB 착공을 검토 중이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신규 생산라인 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사의 국내외 생산설비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이테크 사업은 올해 수주 가이드스인 6.8조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역대 최고 수준 수주가 예상되며, 수주 가이드스 상향도 검토 중입니다.

(질의) 상사 부문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하반기 마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연간 전체 태양광 매각 이익 계획 등 말씀 바랍니다.

(답변) 상사 부문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년은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와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되어 어려운 글로벌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요 품목의 기존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소싱 및 판매 확대, 시장 확대, 품목 다변화 및 투자를 수반한 사업모델 확장을 통해

전년대비 성장한 수익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 등 유망 분야를 지속 추진하여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태양광 개발사업 매각 수익은 3,17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마일스톤 및 신규 매각 건에 대한 일정 지연에 따라서 3분기에는 매각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예상되나, 4분기 우량 안건을 지속 개발하고 매각함으로써 연간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하이테크 사업 성장성도 좋고 원전 사업도 좋은데 전년 건설 부문의 사업별 매출 구성 및 비중과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고 또 앞으로는 하이테크 중심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지 등 큰 흐름을 한번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전년 대비로 올해 각 상품별 매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매출이 14조였는데 그 중에 건축 사업 매출이 8조 수준이었고 올해는 그 흐름보다 좀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의 경우는 전년 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크지 않고 나머지 토목이나 플랜트 사업의 매출 비중도 올해에서 약간 증가한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테크 사업 및 건축 사업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업의 매출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UAE 원전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크게 영향력 있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구조입니다.

(질의) SMR 사업은 언제쯤 매출과 이익에 기여가 될 수 있는지

(답변) SMR사업은 모듈화, 표준화를 기반으로 설계 및 시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향후 SMR 시장 확대에 따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당사의 SMR 설계 수행역량을 기반으로 FEED 등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사전에 주요 공사비를 결정하고 프로젝트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향후 EPC 사업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여 규모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당사는 대형원전 및 SMR 시장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원전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내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주환원 측면에서 배당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주시는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계획인지

(답변) 당사는 지난 2월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70%를 재배당한다는 내용으로 '26~'28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하 배당정책에 따라서 배당 수익으로 들어오는 금액의 60~70%를 재배당할 것이고, 동 주주환원 정책에 따르면 현재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 배당정책에 따라서 당연히 재배당 재원 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빨리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 재배당할 예정인지

(답변) 배당시점 관련, 삼성전자에서 특별 배당을 지급할 경우, 전자는 현재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만약 올해 2분기 혹은 3분기에 전자가 배당금을 늘리면, 물산의 올해 배당 수익으로 인식되어 올해 말 기말 배당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전자가 연말에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27년 배당 수익으로 인식되어 '27년 말 물산의 배당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발표 예정 관련, 약 200억 달러 규모의 가스발전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당사의 상황은

(답변) 어제 발표한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은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상무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의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참여 기회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